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회복운동

백석정신아카데미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회복운동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 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호 4:6-7】





개혁주의생명신학 정의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7대 실천운동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강조하여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코자 하는 신학회복운동이다.



제1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2008년 12월 1일)






제5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제5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회복운동



■ 개최 설교
허광재 목사(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

■ 주제 발표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회복운동
이종윤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2. 목회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회복운동
이영훈 박사(여의도순복음 교회 담임목사)
3. 구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회복운동
김익원 박사(백석대 신대원 학사 부총장)
4. 패널토의
정인관 박사(백석대 교수)
권호덕 박사(백석대 교수)
안명준 박사(평택대 교수)

■ 일시 2012.10.15(월) 10:0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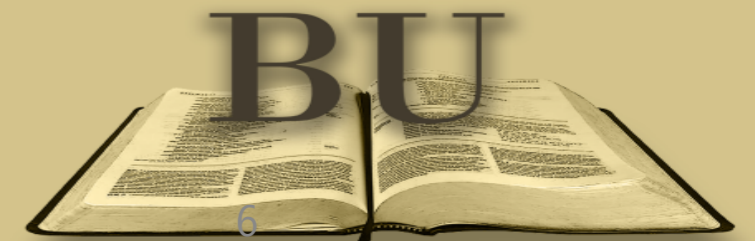
■ 장소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서울캠퍼스)

■ 접수 소속, 성명, 연락처를 lifetheo@bu.ac.kr로
9월 25일(금)까지 접수

■ 주최 백석정신아카데미

■ 문의 041)550-2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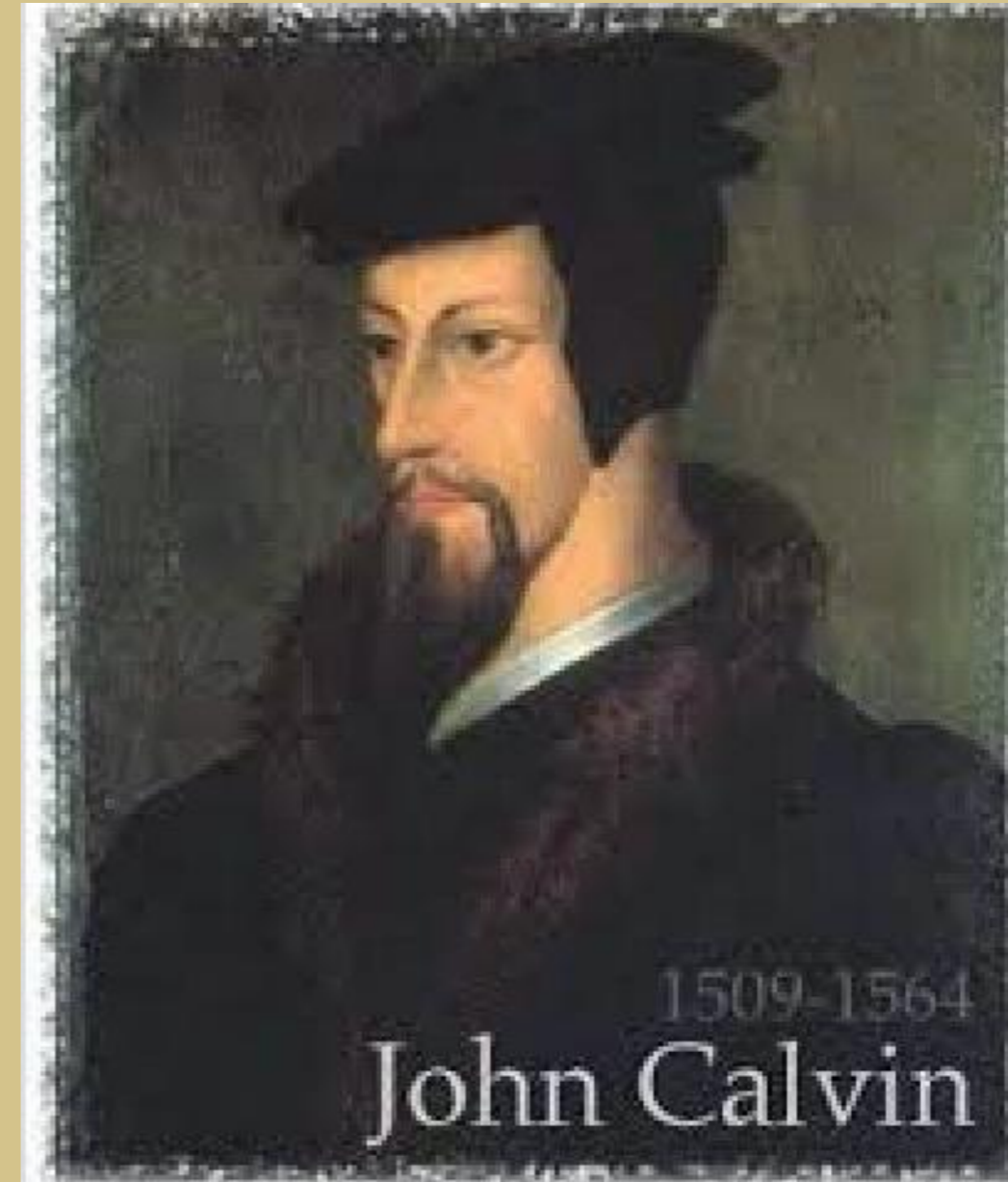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BU 백석대학교





역사적 개혁주의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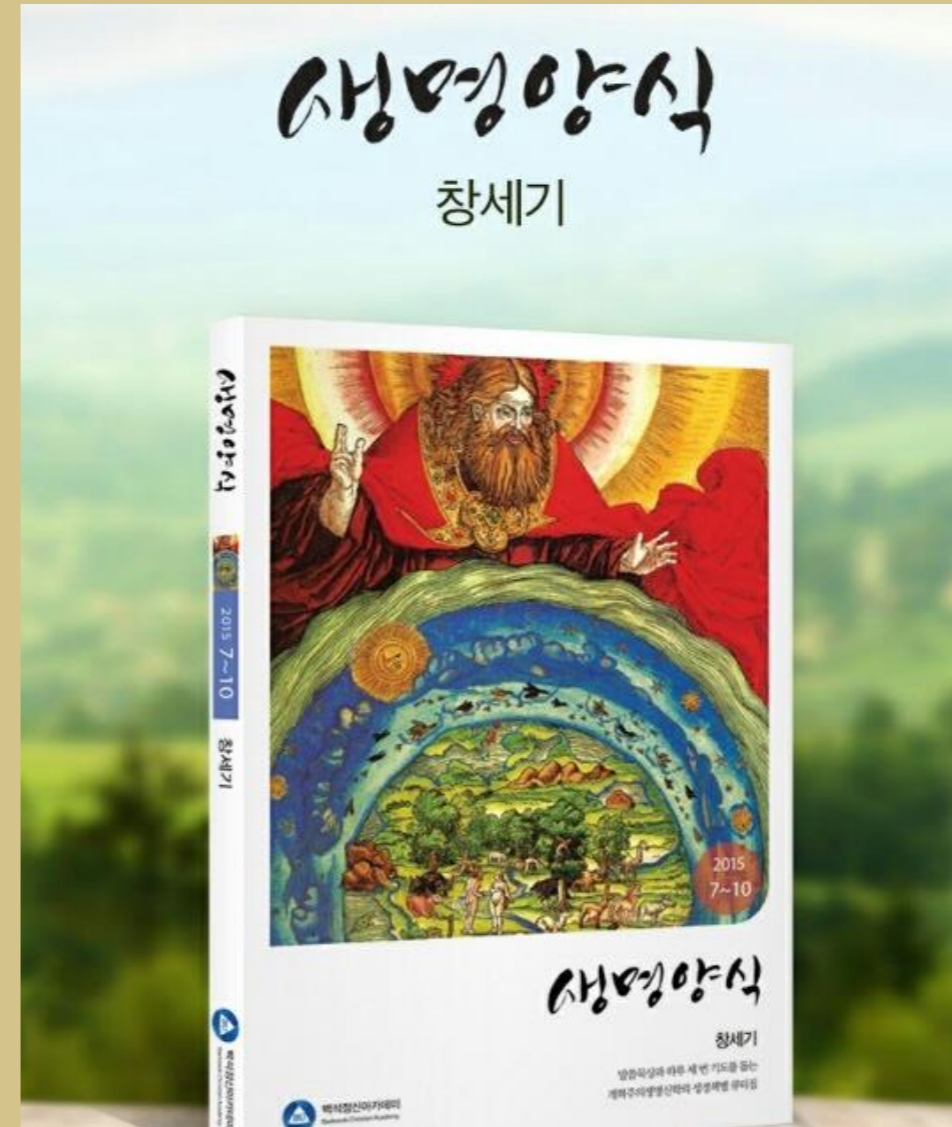
- **16**세기
- 제네바를 중심한
칼빈의 신학





개혁주의신학의 핵심

- 오직 성경
- 오직 그리스도
- 오직 믿음
- 오직 은혜
-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 1

단계

1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2003년 10월 25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2차 국제신학학술대회 폐회예배설교



신학의 사변화



신학의 본질 상실

영적 생명력 잃어버림



교회 침체

신학의 본질이 회복

영적 생명력으로 한국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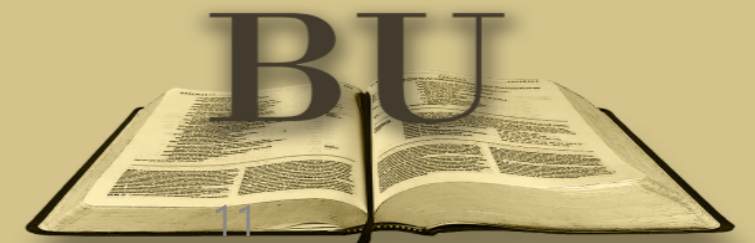
- 생물학...생물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는 학문
- 경제학...경제를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는 학문
- 연구 주체자 -> 인간
- 인간은 연구 대상을 마음대로 관찰하고 실험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그 대상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인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 하나님에 대해 연구할 때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나의 작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신학을 연구할 때는 근본적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을 바라본 자세

-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신학’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기독교를 알지 못하던 이방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를 경우 자칫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

- 우리가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극히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신학을 연구할 때 다루는 자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즉 성경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비해 너무나 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 우리는 지정의를 다 동원한다 해도 그분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신학 작업의 의미와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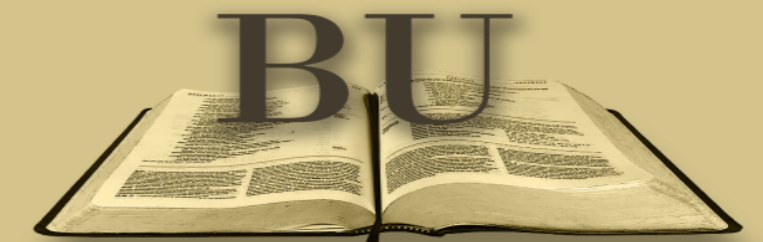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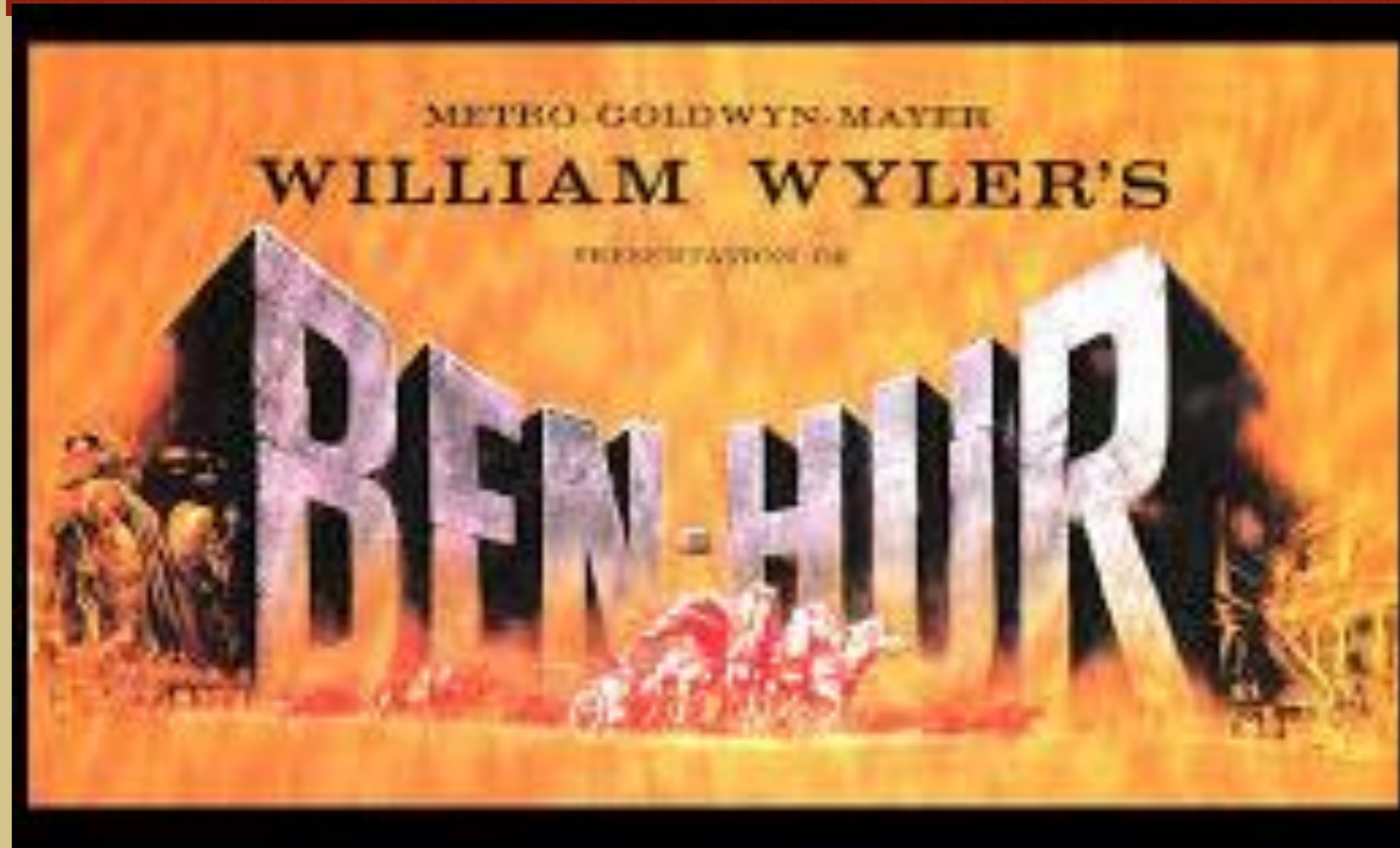
-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작업을 신학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낮추어야 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루 월리스(Lew Wallace)

The Life of Jesus





벤허





교회와 분리된 신학에 대한 반성

- 신학의 일차적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 교회 현장과 동떨어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 작업을 경계해야 합니다.
-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신학회복운동 실천

- 기독교의 이해 **[12권]**
- 목적: 대학생 복음화
- 출판감사예배
[2004년 5월 27일]





기독교 교리 교육

-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교리에 바른 이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며, 성도가 이단의 유혹이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올바른 교리교육을 시행하는 교회는 건전하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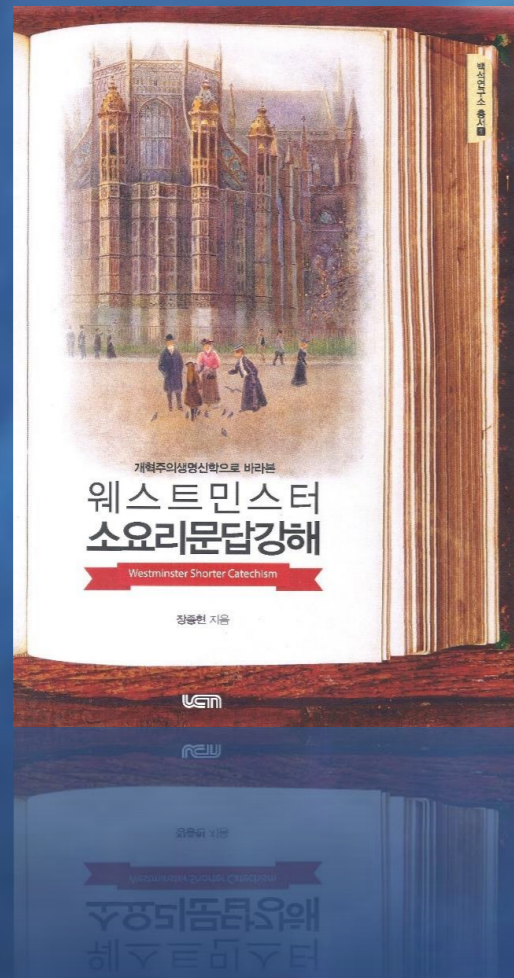
제 4 단계

7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2015년 2월 10일)

주요특징



1 1년(52주) 동안 교육할 수 있도록 52과로 구성

내용 : '성경적 설명'/'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실천'/'함께 생각할 문제'

2 '성경적 설명'은 성경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

'오직 성경'과 '성경이 답이다!'를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을 뒷받침

3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룸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주장하는 실천운동을 명확히 함

4 '함께 생각할 문제'와 더불어 뛰어난 수준을 지닌 PPT를 제공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중시/
역사적 그림과 팁 그리고 삽화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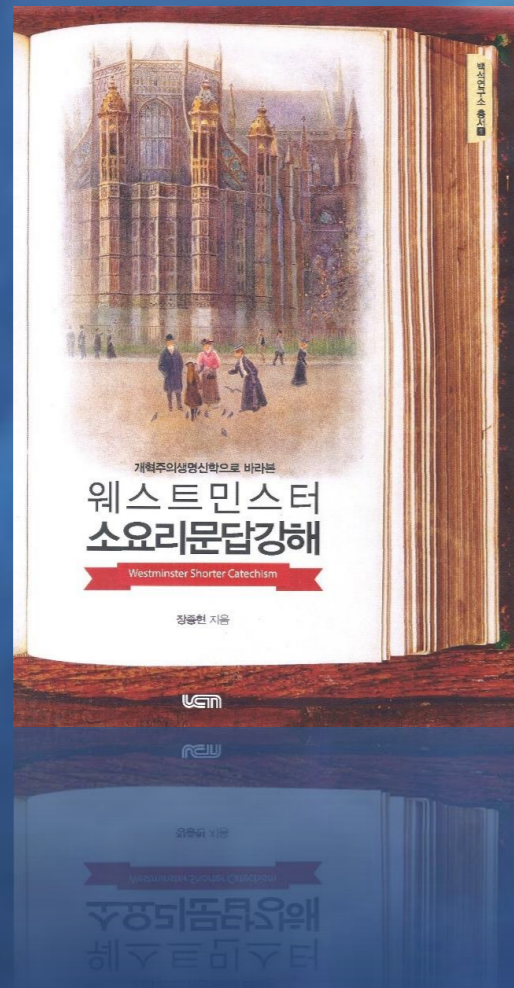
제 4 단계

7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2015년 2월 10일)

주요특징



5 기원과 신학적 배경을 자세하게 다룸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입증함

6 독창적인 저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하신 장종현 박사님께서서 강조하신 주된 메시지
신령한 신학회복운동 강조

7 하나가 되는 구심점의 역할에 기여하는 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근간(根幹)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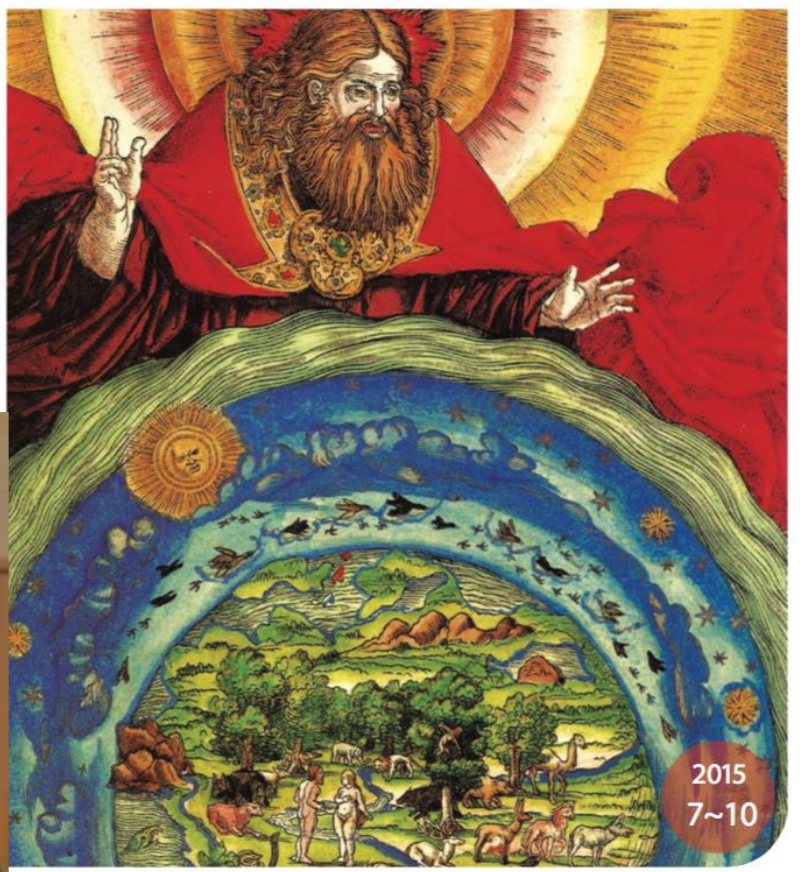
매일양식(2006년3월1일)
 생명양식(2015년7월1일)
 생명양식(2023년11월 1일)



말씀묵상과
 하루 세 번 기도를 돕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성경책별 큐티집



(2015년 6월 20일)



생명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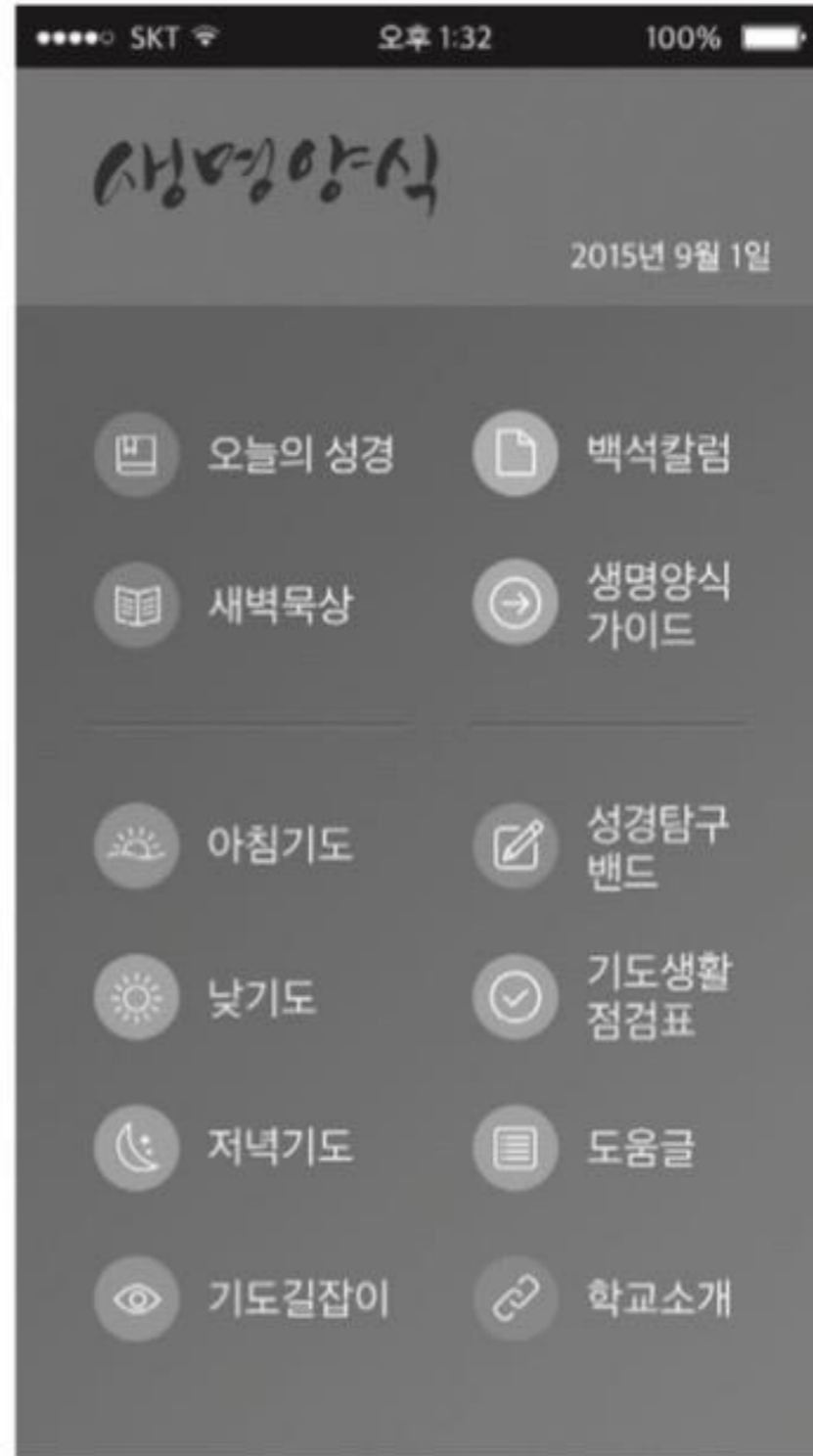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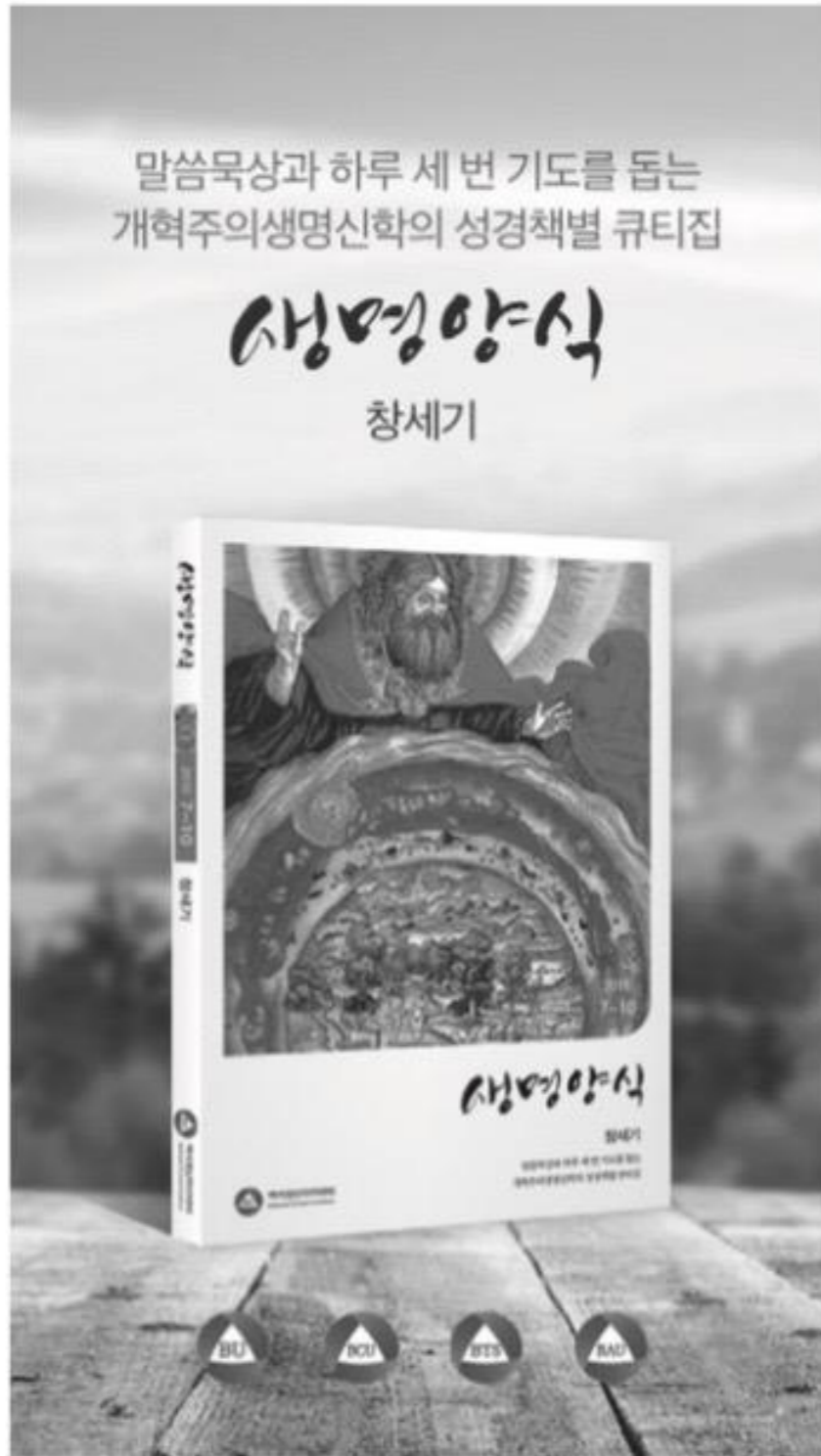
창세기

말씀묵상과 하루 세 번 기도를 돕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성경책별 큐티집



백석
 BAKSEOK

생명양식 스마트폰/패드 앱(2015년 10월)



오늘 본문은 성경의 제일 첫 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다른 어떤 고등종교의 경전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무신론' (無神論)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인간,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 (汎神論)을 내어 놓기도 합니다. 신은 사물 안에 존재하며, 그 사물이



생명양식(2015년 10월 21일) 기도길잡이

영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전통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토마스 아브니 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족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런던 시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취임식날 밤에는 왕과 모든 고관대작들이 다 모였고 영국의 모든 사회 단체 그리고 정치적인 단체들도 취임을 경축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그 연회에 참석하고 있던 아브니 경은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왕과 모든 고위관계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는 다른 장소로 물러나가서 기도회를 가졌고, 그 모임을 마친 후에 다시 그 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목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크리스웰 교리 설교집 7』(요단출판사)]





함께 생각할 문제

- 1.**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 2.** 신학이 교회 현장과 분리되는 모습의 원인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 3.**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신학회복운동 실천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